

“에너지 대전환·기본사회로 ‘생태도시 영암’ 우뚝”

병오년 새해설계



우승희 영암군수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혁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만들고,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RE100·분산에너지 기반 순환경 경제 구축

농촌기본수당·통합 돌봄 보편 복지 실현

역사·인문 자원 있는 체류형 관광지 확충

‘영암형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누구나 살고 싶은 ‘더 큰 영암’을 완성하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8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시간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성장의 단단한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올해는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접목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군

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에 두고, 5대 핵심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깨끗한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선언하며, 분산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산업을 육성해 영암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기운다.

특히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발전 수익이 군민의 기본 소득으로 이어지는 ‘영암형 순환경 경제’ 모델을 구축,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와 그린시티 구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갈 구상이다.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2027년 영암 방문의 해’를 앞두고 월출산과 영산강, 역사·인문 자원을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대폭 확충한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축제와 스포츠 대회가 지역 상권의 소비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관광이 지역 경제의 확실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의 근간인 농업 분야는 ‘농정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농식품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 농업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농민이 훌륭한 땀방울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농가 소득을 단단히 지키는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사람이 머무는 영암’ 만들기에도 주력한다. 영암형 공공주택과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콜버스 도입

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불편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영암형 기본사회’ 완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농촌기본수당’을 도입, 연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월출폐이로 지급해 군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여기에 군민 주치의 제도와 통합 돌봄 시스템을 더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며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군정, 어려울 때 순 내미는 따뜻한 행정으로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보는 눈, 견는 즐거움 되찾아드려요”

취약계층 눈·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대상…본인부담금 덜어

강진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별 벗고 나섰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실명예방재단,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손잡고 안 질환 및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술비 시급함에도 비싼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질환별 적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안 질환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백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술비와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무릎관절증은 노인의료



최근 강진군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 한 주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눔재단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강진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수술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경로당

순회 진료, 입장 회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AI·IoT 기반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보건 정책을 촘촘히 연결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강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 모두가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만든다

위계적 문화 탈피 소통·협업 강화

영광군은 8일 “지난 6일 경직된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모두가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새로운 고침(F5)’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관행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새롭게 ‘새로고침(F5)’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세일 군수 및 간부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원 등 현장 참가자들은 청사 입구와 구름다리 등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피켓 홍보와 리플렛을 배부하며 조직문화 개선 실천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요 실천 내용은 ▲제계적인 인계·인수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직급·연차를 고려한



합리적 업무분장 ▲눈치 야근 균열 ▲연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의 관행 개선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하급자 차량 이용 금지 ▲간부 모시는 날 균열 ▲청렴의무 준수 및 금품·향응 수수 절대 금지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문화 개선 F5 실천 항목을 일상 업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미래형 축산 생태계 조성 박차

66개 사업 오는 30일까지 접수

경쟁력 강화·방역·한우 육성 등

함평군이 미래형 축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6년 축산분야 66개 지원 사업에 총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농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방역·위생 관리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토와 평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2026년 축산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농가 맞춤형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분야 30종 ▲가축분뇨 퇴비사설지 지원사업 등 가축위생 분야 16종 ▲축산농가 농장 입구 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가축

방역 분야 5종 ▲조사료 적재기(그래플) 지원 사업 등 한우 육성 분야 15종이다.

신청 대상은 가축시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축산농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각 사업 지침에 명시된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사업별 세부 내용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 축산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함평=기영규 기자

무안군, 치매 치료비 ‘전 군민’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사각지대 해소

군치매안심센터·이메일 등 신청

무안군은 8일 “지난 1일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없애고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전 군민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 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라는 제한이 있어, 실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군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

기준을 과감히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무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매 진단 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 치매안심센터(061-450-5075)로 문의하면 된다.

이행숙 무안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군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목포시 “2025년생 ‘출생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생후 12개월부터 매월 20만원 지급

관내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정부24’

목포시가 2024년생에 이어 2025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8일 “기준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돼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돼 시행된다”며 “대상 가정은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이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20만원씩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제도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주의’ 원칙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초등 입학·졸업생에 ‘희망의 책가방’ 선물

경제적 부담 덜고 자신감 갖도록 응원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8일 “지난 5일부터 2026년 초등학교 입학·졸업을 앞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설레는 첫걸음, 꿈을 담은 책가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 학기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 졸업생 등 총 52명으로, 이들에게 새 학기용 책가방이 전달된다.

신안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책가방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평한 출발선을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나간 달의 지원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모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정지숙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출생기본소득은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신안=양훈기자